

캠퍼스 한가위 분위기 물씬

‘한가위 한마당’ 21일부터 이틀간 ... 다양한 민속놀이 즐길 수 있어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학내에서도 이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한가위 한마당’이 내일(21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이번 행사의 본마당은 오는 22일 1시부터 △팔씨름 △제기차기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대회가 팔정도 중앙도서관 주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는 행사시작 전까지 학복위 홈페이지(www.dghakbok.net)에서 가능하다. 팔씨름과 제기차기대회는 남자부와 여

자부 경기가 있으며 △1등=문화상품권 3만원 △2등=문화상품권 2만원의 상품이 있다.

단체줄넘기 대회는 12명이 한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줄넘기는 2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남자와 여자 비율이 같아야 한다. 상품은 △1등=식권 60장 △2등=식권 36장 △3등=식권 24장이다. 줄다리기 대회는 남자 10여명과 여자 10명이 한팀으로 이뤄져야 하며 상품으로 △1등=식권 100장

△2등=식권 50장 △3등=식권 30장이 주어진다. 이밖에도 △떡돌리기=오전 11시 30분, 중앙도서관 앞 △김놀이=오전 11시 30분, 학내 곳곳 △마당극=오후 12시, 불상 앞에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부대마당으로 내일(21일)부터 이틀간 팔정도 도서관 앞에서 △민속놀이(널뛰기,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 △우리 옷과 복한 술 판매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복위는 23일까지 팔정도 주변에서 나주배를 저렴하게 판매한다. 배는 10개들이 7.5kg 상자로 2만 3천원부터 3만 3천원까지 있다. 배를 구입하면 수확현장에서 직접 자택으로 발송한다. 이와 관련해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박덕수·역교4)는 “접수한 날부터 자택에 이를 안에 도착한다”며 “원하는 날짜에도 도착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단과대 학생회에서도 한가위 맞이 행사를 진행한다. 문과대 학생회(회장=최이평·사3)는 내일부터 이틀간 명진관 앞에서 송편돌리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술대 학생회(회장=이진영·영화4)의 경우 학복위와 연계해서 행사가 실시된다. 행사는 20일부터 5일간 두리터에서 널뛰기와 윷놀이 등 민속놀이가 진행되며 22일부터 3일간 송편돌리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여학생실(실장=손재현·체육교육)이 계산관 1층에서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6시간동안 송편을 빚는 프로그램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송편은 한가위를 홀로 보내는 중구 관할 독거노인에게 전달된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한가위를 앞두고 ... 한가위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학내 구성원들은 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지난 16일 학생복지위원회가 중앙도서관 앞에서 나주배 구매신청(왼쪽)과 귀환버스 접수(오른쪽)를 받고 있다. 정기훈 사진부 객원기자 tai@dongguk.edu

주최	행사	일시	장소
학복위	제기차기, 팔씨름, 단체 줄넘기, 줄다리기 대회	22일 오후 1시	중도 앞
	민속놀이, 나주배 판매, 복한 술 판매 등	21일~22일	불상 앞
문과대	송편돌리기	21일~22일	명진관 앞
예술대	민속놀이	20일~24일	두리터
	송편돌리기	22일~24일	
여학생실	송편배우기·사랑나누기	22일 오전 10시	계산관 1층

생협, 식당위생 개선위한 대책마련

모니터링제도 개편, 식자재 검수 강화 등

생활협동조합(이사장=송일호·경제학, 이하 생협)이 일일위생점검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원제도를 개편하는 등 식당 위생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모니터링제도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모니터링요원을 생활구성원에서 학내구성원으로 변경하고 △교원 1명 △직원 1명 △대학원생 1명 △학부생 7명을 공개모집할 예

정이다.

또한 모니터링요원은 식당과 서점, 매점 등에 매달 순환 배치돼 위생과 서비스를 점검하게 되며, 생협은 관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요원을 학기마다 교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생협은 위생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료·조리 가공식품과 조리시설 점검 △상록

원 식당 코너별 위생관리담당자 선정 △식자재 검수를 강화하며 쾌적한 식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5일 상록원 식당 양식코너 등의 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생협측은 “지난 12일 상록원 식당에 보관중인 식자재 관련 지적 방송내용과 관련해 학내구성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돈희교수 ‘세계박물관대회’ 기조연설

세계적 명사 중 교수로서 유일하게 선정

우리학교 임돈희(사학) 교수가 국제박물관협회에서 주최하는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에서 국제 민속박물관장,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으로 구성된 6명의 기조연설자 중 교수로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관련 인터뷰 3면

임돈희 교수는 지난 1999년 아

시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국제심사위원직에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문화재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한편 이번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박물관협회는 비정부기구로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보존, 전승하여 사회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박물관의 전문직 종사자들과 학자들이 모여 구성됐다.

이 기구에서는 3년마다 한번씩 세계에서 박물관대회를 열고 있으며 그동안 주로 유럽권에서 대회를 개최했으나 이번에는 아시아권으로서 최초로 일본과 결합 끝에 우리나라가 개최한 것이다.

이번 대회는 ‘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을 주제로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되며 전통문화 관람 및 체험, 특별전시 및 야외 특별 행사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추석맞이 ‘사랑의 나눔잔치’ 24일 오후 4시 예술극장

참사람봉사단은 오는 24일 중구 관내 무의탁노들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사랑의 나눔잔치’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우리 학교 주변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참사람 봉사단 내 봉사학생들과 여학생실의 학생들이 주축이 돼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학교 예술극장에서 4시부터 진행될 이번 행사는 1부 행사에서 △총장격려사 △중구청장 축사 △잔치 한마당(손재현 교수 무용단 공연, 댄스 동아리 공연, 단풍연사 물놀이)가 진행될 계획이며 2부에서는 참석한 사람들을 위한 만찬 자리와 송편, 기본 생활용품 등의 위문품이 전달된다.

이와 관련해 참사람 봉사단 최정숙 계장은 “교직원들이 조금씩 모은 성금이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림

추석연휴 관계로 다음 신문은 10월 11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구성원 하나되는 문화축제 개막

백상예술제전 23일까지 ... 지역주민들과 대동한마당

예술과 제전 등의 다양한 행사로 학내 구성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백상예술제전이 오늘(20일)부터 4일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마라톤은 첫날 오후 12시 불상 앞에서 출발해 약 6km구간으로 진행된다.

농구의 경우 19팀이 토너먼트 형식의 대전을 거쳐 내일(21일) 1시에 만해광장에서 결승전을 실시한다.

여자 줄다리기는 현재 7팀이 참가했으며 내일부터 이틀간 오후 3시에 만해광장에서 예선과 결선이 치러진다. 상품은 △1등=냉장고 △2등=미니컴퍼넌트 △3등=회전식 운풍기이다.

또한 대동한마당 장기자랑 예선은 7일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오후 4시에 불상 앞에서 치러진다. 결승진출팀은 오는 23일 폐막제에서 결승전을 진행하며 상품은 △1등=디지털 카메라 △2등=MP3 △3등=문화상품권이다.

예술제의 하나로 열리는 영화제 ‘추남추녀’는 오늘(20일)부터 3일 동안 불상 앞에서 오후 8시에 진행된다.

상영되는 영화는 △20일=이는

여자 △21일=남자친구한테 10일 만에 차이는 법 △22일=냉정과 열정이다. 상영 중 관객들에게 간식을 나눠 줄 예정이다.

한편 폐막제는 오는 23일 오후 6시 후문에 위치한 녹두사거리에서 중구민과 함께하는 ‘중구필동 3가동국대학교’를 모토로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1부=중구시민과 함께하는 대동한마당 △2부=백상예술제전 폐막제로 구성돼 있으며 1부는 중구시민 노래자랑이며, 2부는 각종경기 시상식과 장기자랑 결

선이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문화제도 열려 노래패·유희패의 공연과 마당극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재동·불교4)이국한 군은 “대학이 지역문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이번 문화제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번 폐막제는 중구청과 연계해 진행하는 것이며 녹두사거리부문을 4시간 정도 차량을 통제할 계획이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동대 학술상·문학상 작품 모집

- 모집분야 : 인문과학상, 사회과학상, 자연과학상
- 응모요령 : 3개분야 모두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 시 상 : 각 분야별 장원 1명 70만원, 가작 1명 50만원
- 응모자격 :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제 출 : 10월 25일(월) ~ 11월 12일(금)까지 방문·직접·우편 접수
- 입상발표 : 2004년 11월 22일자 동대신문
- 문 의 : (02) 2260-3491~2

- 모집분야 : 시부, 소설부, 희곡·시나리오부
- 응모요령 : 시부문 3편 내외 소설부문, 희곡·시나리오부문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 시 상 : 각 분야별 장원 1명 50만원, 가작 1명 30만원
- 응모자격 :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제 출 : 10월 25일(월) ~ 11월 12일(금)까지 방문·직접·우편 접수
- 입상발표 : 2004년 11월 22일자 동대신문
- 문 의 : (02) 2260-3491~2

동대신문사

발전기금 060-700-0119

“할머니 이것 좀 잡수보세요.”

모두가 모여 즐거운 한가위.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홀로 밥상을 마주하는 외로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접시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보는건 어떨까요?

한가위, 나눌수록 더 넉넉해 집니다.

동대신문사

제작 : AD.RUSH

본교 졸업생 성실성·조직적응력 우수

기업대상 우리학교 졸업생 평판 설문조사 결과 나타나

기업 인사 관계자가 바라본 우리 학교 졸업생은 성실성과 조직 적응력, 적극성 등이 우수한 반면 창의력, 전공지식, 기획능력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획인사처(처장=박종훈·윤리문화학)가 5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졸업생의 평판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설문조사는 졸업생에 대한 기업 만족도와 졸업인증제, 졸업생 재교육 프로그램, 산학협력에 관한 기업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본교 출신 사원에 대한 기업 만족도 설문조사는 △전공지식 △업무처리능력 △창의력 △성실성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결과를 살펴보면 성실성, 조직 적응력, 인화력, 적극성, 발전가능성 항목에서 평점 5점 만점에 3.60이상의

평점을 얻어 긍정적으로 평가됐고 창의력, 전공지식, 기획능력 등과 같은 항목에서는 평점 3.38이하의 점수를 얻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획능력, 프리젠테이션과 같은 실무부분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와 실무에 직접 활용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졸업 인증제에 관한 의견으로는 엘리트 프로그램을 이수한 명단을 받아보기를 원하는 기업이 23개로 전체의 47%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의 인증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프리젠테이션 부문이라고 답한 기업이 9개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학과 전공지식, 리더십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기업들은 실무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항목	매우뛰어남	뛰어남	보통	부진함	매우부진함	계	평점평균
전공지식		17	33			50	3.34
업무처리능력	1	21	28			50	3.46
창의력	1	14	35			50	3.32
성실성	4	28	18			50	3.72
조직적응력	5	22	22	1		50	3.62
인화력	5	25	19	1		50	3.68
기획능력	1	16	30	3		50	3.30
프리젠테이션	3	17	26	4		50	3.38
적극성	5	24	20	1		50	3.66
발전가능성	7	18	25			50	3.64

한편 기획인사처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학사지원실과 교양교육운영실, 취업지원팀에 전달해 본교 졸업생들이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제공했다. 이와 관련해 취업지원팀의 김명숙 계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커리어 엘리트 프로그램 신청자들에게 한해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비지니스 프리젠테이션과 같은 강좌를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해외탐방 우수팀 선정

최우수 경행과 정연성 군 외 2명 차지

지난 11일 진행된 '동국해외탐방' 보고회 심사결과 최우수 1팀, 우수 2팀이 선정됐다. ▶관련기사5면

최우수팀은 'PBB도입을 통한 경찰 예산의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정연성(경행3), 한우섭(경행3), 김종배(경행1) 팀이 선정됐으며 각 학생별로 등록금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또한 우수팀으로는 △'하노비대학의 유비쿼터스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민풍

기(컴퓨터공학4), 손성진(정보시스템공학4), 최보윤(컴퓨터공학4)팀 △'IT와 BT의 융합-이제는 생물정보학시대'를 주제로 한 오원찬(생물학3), 이광민(생물학3), 이지현(생물학3)팀이 선정돼 등록금 30%가 감면된다. 이와관련해 장학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심사부터 교수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심사의 공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인전무대

통합판매

○...졸업앨범과 동영상 CD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데. 이유인즉 졸업앨범을 신청하려면 학과행사 모습이 담긴 동영상 CD도 반드시 구입해야하기 때문이라고.

학생들이 구입하는 졸업기념품인 만큼 앨범과 CD는 분리판매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하나는 없고 오직 둘뿐이다(?!)"

유비쿼터스의 한계

○...우리학교 이메일 사용 후 오프라인 상의 확인은 필수라는데. 이유인즉 학교 이메일 서버가 자주 다운될 뿐만 아니라 첨부 파일이 제대로 첨부되지 않은 채 전송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우리학교 교수들까지도 학교 이메일 사용을 자제할 정도라고 하니 이에 대한 시급한 정보관리실 측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작은 시스템이 트러블해야 큰 시스템도 안무너집니다(?!)"

야도의 밤손님

○...요즘 동국관 M동 5층 야간도서관은 몇몇 학생들의 전용도서관으로 변했다는데. 이유인즉 야간도서관을 이용하는 일부 학생들이 저녁에 자신의 소지품으로 미리 자리를 맡아 두는 것이라고.

야간도서관에서 공부하기 위해 아침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자신만의 편의를 생각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야도의 밤, 물결은 있되 사람은 없다(?!)"

보이지 않는 경쟁

○...교내에 부착돼 있는 포스터들이 난데없는 수난을 당하고 있다는데. 알야보니 영어 특강 포스터가 교내 전 게시판에 도배할 정도로 부착돼 있어 다른 포스터를 부착할 공간이 없는 것이라고.

더구나 먼저 붙여져 있는 게시물을조차 무작위로 제거해 많은 학내 구성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데.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포스터 세계의 철칙, 굴러온 포스터가 박힌 포스터 때면 안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4일부터 인터넷 접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접수가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psi.dongguk.edu) 자료실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총 58명으로 인문계 39명, 자연계 14명, 예체능계 5명이다. 한편 외국인은 사범대학 모집단위에는 지원할 수 없다.

서류심사는 11월 18일까지이며 필답고사, 면접고사, 실기고사를 치른 뒤 합격자 발표는 12월 9일 예정이다.

대의원총회 22일 개최

학생총회 성사인원 조정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동우·중문4, 이하 비대위)가 오는 22일 6시 학림관 J410에서 대의원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는 128명의 정족수를 넘겨야 성사된다. 총회 안건은 △학생총회를 전 학생의 1/5에서 1/10로 성사인원 하향 조정 △장학금 축소·폐지에 대한 성명서 발표 등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우 비대위원장은 "학생총회가 빈번하게 무산돼 학

생들 사이에서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성사인원을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연극제 개막

다음달 6일부터 10일간

개교 98주년 기념 2004 동국 청소년 연극제가 오는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극제는 예술대학 연극영상학부 연극학과가 주관하며 연극영상학부 동문회가 후원한다.

전국 30여개 고등학교가 참가하며 △단체상=대상(1팀), 최우수작품상(2팀), 우수작품상(4팀), 장려상(4팀), 최우수 연기상(2명) △개인상=우수 연기상(4명), 장려상(7명)이 수여된다.

수강취소 23일부터

12학점미만 취소불가

수강신청과목 취소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각 단과대 교학관에서 실시된다. 수강신청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교학관에서 취소신청서를 받아 학업지도 교수에게 승인받고 교학관에 접수하면 된다.

수강과목 취소 후 신청학점이 12학점 미만일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 단, 4학년은 3학점을 초과할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미래의 '솔로몬' ... 지난 15일 학술문화관 K동 제1세미나실에서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이 '국제해양분쟁해결 절차와 ITLOS'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했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법대학술제 다음달 6일 열려

심포지엄과 모의재판 등 다양한 행사

법대 학술제가 오는 10월 6일부터 3일간 중강당에서 열린다.

행사는 △6일=개회식, 사법학회 심포지엄(주제: 인터넷과 저작권법의 관계에 대한 사법적 고찰), 형사법학회 형사모의재판(주제: 의료목적의 보호에서 감금의 형사상 문제) △7일=법음대 법조인의 삶 강연, 공법학회 헌법모의재판(주제: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헌법소원) △8일=민주법학회 난산토론회(주제: mp3를 통

해 본 법과 기술진보의 괴리), 국제법학회 국제모의재판(주제: 배심제의 타당성 검증과 적합성 판단)으로 진행된다.

이 중 법조인의 삶 강연은 김희욱(법72졸)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할 예정이다.

또한 마지막 날 오후 6시 30분 상록원 3층 교직원식당에서는 교수와 졸업생 등이 참여한 '법대인의 밤'을 개최해 행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고수동정



△김영민(영어영문학)=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개최하는 '홍킨스 국제학술대회'에 논문 발표를 위해 참석



△손재현(체육교육)=오는 24일 안암동 승가원 강당에서 제13회 행원문화상 예술 부문에 수상한다. 이는 손 교수가 그동안에 불교계에 공헌한 바를 인정받아 수상하는 것이다.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9/20)	쇠고기무국 (1800) 제육볶음(2000) 치킨살러드 (2000)	돈갈비김치찌개 (2000) 오징어가스 (1800) 떡볶고기 (2000)	된장찌개 (3200) 쇠고기국밥 (3500) 누치볶음 (3800)
화 (9/21)	김치탕 (1800) 버섯물고기 (2000) 해물짬뽕 (2000)	바지락수제비 (1800) 쇠고기볶음밥 (1800) 카레돈가스 (2000)	된장찌개 (3200) 육개장 (3500) 가지미꾸이 (3500)
수 (9/22)	갈비탕 (2000) 닭도리탕 (2000) 두부김치 (2000)	순만두국 (2000) 돈육장조림 (2000) 참치야채비빔밥 (2000)	된장찌개 (3200) 날치알술밥 (3500) 닭조림 (3500)
목 (9/23)	육개장 (1800) 돈간통기 (2000) 청포비빔밥 (1800)	설렁탕 (1800) 닭조림 (2000) 제육볶음 (2000)	된장찌개 (3200) 갈비탕 (3800) 산채비빔밥 (3500)
금 (9/24)	장태국밥 (1800) 오징어볶음밥 (1800) 족찜 (2000)	부대찌개 (1800) 쇠고기유부덮밥 (2000) 양념치킨 (2000)	된장찌개 (3200) 동태찌개 (3500) 삼겹살김치볶음 (3500)

금주의 추천메뉴

감자탕 (동국관 화요일 조식)

감자탕의 역사는 삼국시대 때 전라도 지방에서 돼지뼈를 우려내어 뼈가 약한 환자나 노약자에게 먹었다는 것에서 유래한다.

주재료인 돼지등뼈에는 칼슘과 단백질, 비타민B1이 풍부하여 골다공증과 노화방지에 도움이 된다. 많이 먹어도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다.

동악게시판

교내 여행사
영어 연수, 유학, 인턴십 프로그램
교내 상담센터
다향관 1층

검도부
신입부원 모집
04학년 남자
9월 24일까지
학관 4층

자연과학연구회
신입생 모집
학관 3층
매주 목요일 6시 세미나

마이크로 컨트롤러 및 스티디
전기공학과 04학년 신입생 모집
원흥관 E102
문의: 010-3150-1002

DUFF
코카콜라(주)에서 근무하는 선배 초청
강연회
9월 20일 6시 원흥관 E217

2004 한국분자·세포 생물학회 추계 학술대회
10월 14일~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

SSID
신입생 모집
매주 월, 금 6시 학림관 503
문의: 019-474-3494
http://cafe.daum.net/SSID

손짓사랑회
신입생 모집
학관 2층

동굴탐험연구회
신입생 모집
학관 지하
문의: 016-500-9803

국교과 임시총회
9월 20일 J301
학생회비 인상 및 학습담사 관련 논의

Fearless Dawn
정기공연
9월 21일 오후 1시
학림관 소강당

취업
에이취엔케이(주)
모집부분: 관리/컨설팅
응시자격: 성실함과 센스, 성장하고

자 하는 의지
접수기간: 9월 30일까지

CJ Systems
모집부분: Network 운영, 정보보호
응시자격: 이공계, 경상계열,
인문계열
접수기간: 9월 20일까지

아르바이트

비엔비클럽
시급: 4천원
근무기간: 9월 6일~9월 19일
근무시간: (평일) 오전 7시 30분~
오후 1시 30분, 오후 5시~오후 8시
(주말) 오전 11시~오후 8시
문의: 02)2166-2477

바이탈하모니텍
근무기간: 1일 2-3시간
모집기간: 9월 23일까지
문의: 이경환(019-398-2983)

에이씨넬슨(설문조사)
모집: 여자
급료: 부수당 6천원~7천원
모집기간: 9월 23일
문의: 02)2122-7261

이주의 본고역사

9일간 임시휴업 들어가
학교출입 전면통제

우리학교는 지난 86년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9일간을 가정학습기간으로 정해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조치는 9월 23일 오후 6시에 열렸던 긴급학자장회의에서 결정되어 24일부터 도서관 휴관과 함께 재학생들의 학교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학교측은 조치의 배경에 대해 계속되는 시위로부터 학생 보호 및 교육시설의 보호와 각 대학연합시위 방지라는 측면에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휴업기간동안 휴업 철계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점거 능성이 잇따랐다.

동국-로알 한의대
한 의사 합격을 1위

우리학교가 96년 9월에 합병 인수한 '동국-로알 한의대' 대학이 97년 9월에 있었던 캘리포니아주 한 의사 면허시험 최종발표에서 최고 합격률을 기록했다. 캘리포니아주 한 의사 시험은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387명이 응시한 필기시험에서 235명이 합격해 65%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한의과대학 10개 대학 중 한국어 프로그램이 개설된 곳은 로알한의대를 비롯 사우스베일로(64%), 황제(59%), 삼라(53%) 등이 있으며 이중 우리학교 로알한의대가 65%의 최고합격률을 나타내 우수 한의대로서의 위상을 보였다.

제1회 독서퀴즈왕 대회 열려

학내 독서 열기 높이는 기회 마련

지난 15일 중앙도서관(관장=최인숙·철학)에서 주최한 '제1회 동국 독서퀴즈왕대회'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중앙도서관에서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고취시키고 도서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총 50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적의 내용, 작가

의 이름, 일반 상식, 불교 관련,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다.

2시간 동안 총 35개의 문제를 풀 학생들은 마지막 '불교에서 삼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세 가지를 모두 적어라'하는 문제에서 '불, 법, 승'의 정답을 맞춘 학생이 최후의 승자로 가려졌다.

1등은 경찰행정학과 3학년 곽상탄 군이 차지해 장학금 100만원을 수여받았다.

또한 2등은 북한학과 4학년 이재현 군으로 장학금 70만원, 3등은 문예창작학과 1학년 최윤혁 군으로 장학금 30만원을 각각 수여받았다.

이와 관련해 1등을 차지한 곽상탄 군은 "평소 신문에서 본 것이나 수업시간에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신 책들을 꼭 챙겨 보았던 것이 오늘의 결과를 가져 온 것 같다"며 "이번에 받은 장학금으로 겨울방학 때 배낭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했다.

앞으로 중앙도서관에서는 이번 행사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최인숙 도서관장은 "처음 행사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많이 얻었던 만큼 매년 또는 학기마다 이번 행사를 꾸준히 마련해 학생들이 도서관을 찾는 시간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시된 문제에 학생들이 답을 적어 보여주고 있다.

최영조 교수 미술품 기증

경주캠퍼스 최영조(인문대 미술학)교수가 우리학교에 미술품 20점을 기증했다.

기증한 작품은 시가 5억원 상당으로 지난 14일 서울과 경주캠퍼스에 각각 10점씩 기증됐다. 이번 기증은 서울과 경주를 통틀어 처음으로 발전기금 목적이 아닌 교내환경미화를 위해 기증한 것으로 서울캠 구도서관 등에 전시될 예정이다.

교육실습 동의서 접수

오늘(2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교육실습동의서 교부 및 접수를 받는다.

이번 접수는 2005학년도 1학기 4학년 재학중인 교직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한편 사범대 교과과가 오는 10월 4일 교육학특강 접수를 받는다.

이번 특강은 오는 10월 21일까지 학림관 J201에서 매일 오후 6시부터 100분 동안 강의가 진행된다.

특강의 목적은 교직과정 이수자들에게 중등교원 임용고사를 대비하고 합격률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것이다.

원총, 기초강좌 접수 다음달 1일까지 영어독해, 일본어 등 여러강좌 개설

대학원총학생회(회장=신정민·국문학 석사과정)가 기초강좌 신청을 받는다.

기초강좌 접수는 오는 10월 1일까지 학술관 5층 지하 1층 대학원총학생회 사무실에서 받는다. 진행되는 강좌는 △영어독해(인문·사회계)=강민건 △영어독해(자연계)=장효진 △초급일본어=윤상한 △중급일본어=정보현 △중급중국어=후조양 △기초통계=최이선 △중급통계=손창균 △TOEFL △논술=이철호 등으로 오는 10월

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8주간 진행된다.

이 중 TOEFL 강좌는 이번에 처음 개설됐다. 수강료는 1만원이며 75%이상 출석시 종강 후 수강료를 전액 환불한다.

이와 관련해 신정민 총학생회장은 "이번 기초강좌는 올해 세 번째로 개설되는 것이며 학생들이 수강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출석 75% 이상이면 수강료를 전액 환불하는 제도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경영대 '동맥한마당' 21일 나체발 율동패 공연, 노래자랑 등 3시간 동안 진행

경영대 축제 '동맥한마당'이 내일(21일) 오후 5시 나체발에서 열린다.

하루동안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출다리기 △3인 5각 계주 △커플노래자랑 △율동패 공연 △극가 보안법 폐지 및 교비환수·등록금

관련 발언으로 구성되며 약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형준(경영3) 경영대 학생회 사무국장은 "10월 말에는 경영대 내 각 과별 행사가 3~4일간 진행돼 단과대 축제는 간소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사회교육 무료강좌 개최

생명공학기술과 산림환경생태 사례 소개

산림자원학과에서는 산주와 일반인을 위한 '산림사회교육' 무료강좌를 다음달 9일부터 3회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산주에게는 산으로부터 이익창출 관리방법을 제시하고 일반인에게는 숲과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 소유자 및 산에 관심있는 일반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인원은 각 회당 선착순 160명이다.

교육은 주말을 이용해 토요일은 강의, 일요일은 현장견학으로 진행

된다. 참가비와 교재는 무료이며 중식비 1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접수는 산림자원학과에서 받는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다양한 기능을 홍보하고 산삼, 더덕, 버섯류, 산채류 등의 산지재배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풍수지리 및 부동산 관리 분야의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실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하기도 한다.

직원노조 출범식 오는 23일 개최

직원노조(지부장=최광재·연구지원팀 과장)가 오는 23일 오전 11시 중강당에서 제11대 출범식 및 정기총회를 진행한다.

이번 출범식 및 정기총회에서 제10대와 11대 직원노조 임원들의

이·취임식이 열린다. 또한 11대 사업 계획보고 및 예산(안) 승인이 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직원노조 변민우 사무국장은 "직원노조가 새롭게 출범된 만큼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회, 설문조사 진행

교비환수·학생자치권탄압 등 물어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재동·불교4, 이하 비대위)가 오는 23일까지 본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받는다. △교비사용 계획 △필동병원 공간문제 △총장장학 등에 대한 문항이 있다.

또한 2천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중도 앞과 동국관 등에 설문조사대가 위치해 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학교 측과 대화의 자리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약국

가진자의 이기심



자동차로 꽂힌 캠퍼스

"이렇게 입구에 차를 세워놓으면 어떻게 지나다니라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지하주차장은 항상 자리가 남아 텅텅 비었던 데."

원흥관 앞을 지나던 학생들의 불평이다. 중앙도서관 지하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이용률이 저조하다. 매일 20대 남짓한 차만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위치상의 불편함을 이유로 지하주차장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외면 받고 교내의 통행로만 주차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끝에서 끝인 후문에서 중문까지를 걷는 데도 10~15분 정도가 소요된다. 더구나 학교의 중간 부분에 위치해 있는 중앙도서관에서 학교에 있는 어느 곳을 가더라도 15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본교에서 차를 이용하는 학내구성원들은 이 정도의 수고로움도 감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부 구성원들의 이기심을 찾아 볼 수 있는 사례가 또 있다. 95년 처음 시행됐던 '차없는 날' 행사가 유아무야 되던 중 2001년 총학생회의 건의를 학교가 받아들여 다시 시행해 왔으나 올해 초부터 폐지된 것이다.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교수들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주 원인이었다. '차 없는 날'을 시행하는 날이면 담당부서에 항의전화까지 쉴 새 없이 걸려왔다. 학교 전체 구성원을 위한 행사의 의미를 이해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편의만을 주장하는 것이다.

대동제나 백상예술제전과 같은 학내 행사 때 이뤄지는 차량 통제 또한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차량통행 금지라는 표지판이 무색할 만큼 학내구성원들의 동참은 이뤄지지 않는다.

캠퍼스는 주차장이 아닌 사람을 위한 공간이다. 따라서 차를 끌고 캠퍼스에 오는 학내 구성원들은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그 외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수 있어야 하며, 공간이 있다면 당연히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서울세계박물관대회' 기조 연설자로 선정된 임돈희 교수 인터뷰

"우리나라의 선진 문화재 보호제도 세계로 알리는 뜻깊은 기회 될 것"



사학과 임돈희 교수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세계 문화인들의 축제,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에서 우리학교 사학과 임돈희 교수가 국내 교수로서 유일하게 기조연설을 맡게 됐다.

이에 임 교수를 만나 이번 대회에 참석한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기조연설을 맡게 된 소감은. =이번 대회 주제가 '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인 만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선정 국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력을 인정받아 연설위원으로 선정된 듯하다. 전 세계 국립민족학박물관장과 노

벨 평화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와 함께 선정돼 많이 설레이고 기대된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준비에 열중하고 있다.

-기조연설의 주요 내용은. =현재 전 세계 박물관들은 고정적인 유형문화재 전시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마련해 놓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40년 전부터 무형문화재 보호법으로 '인간문화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진적 문화재 보호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이러한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무형문화유산들이 잘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참가한 여러 나라 학자들에게 알리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무형문화유산이 고착화 돼 가는 등 그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해 볼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호

제도가 개선돼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보호 제도는 모든 분야를 획일적으로 지원 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승이 잘되고 있는 분야와 후계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를 나누어 계승이 잘 되지 않고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외교부와 문화재관리청, 학자들이 협력해 현행 제도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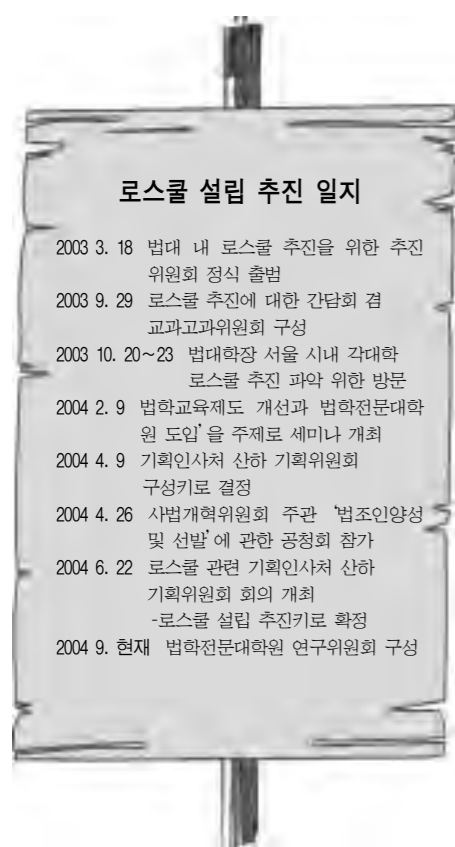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올해 말에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 선정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강릉 단오제'가 후보로 올라있는 만큼 중요제례와 제례악과 판소리의 뒤를 이어 또 하나의 세계적 문화재로 선정되기 위한 신청서 작성, 비디오 자료 제작 등을 자문 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외부 활동을 하더라도 학생들의 강의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오는 11월부터는 중국에 술원에서 한국의 문화와 관련한 강연도 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 준비현황

인가기준 충족 넘어 특성화가 관건

연구위원회 10월 말부터 교수총원 등 적극적 활동 시작



사법개혁과 국제적 전문변호사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는 지난 7일 대법원이 오는 2008년 첫 신입생을 모집하고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된 뒤에도 5년간 함께 실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사법개혁위원회는 오는 20일 제 20차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의 개선안을 토대로 하는 로스쿨 단일안과 변호사협회 등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는 쪽의 현행제도 개선안을 비교한 뒤 늦어도 다음달 4일까지는 결론을 내기로 했다.

로스쿨 도입 현실

대법원에서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시한 개선안은 그동안 로스쿨 도입과 관련된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사법개혁위원회 또한 대법원에서 제시한 로스쿨 단일안 쪽으로 결정을 내릴 것

이라는 전망이 높다. 특히 중립적 입장인 위원장을 제외한 경우 사법개혁위원회 20명의 위원 중 16명이 이미 로스쿨 도입에 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로스쿨 도입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와 같이 로스쿨 도입에 관한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그동안 로스쿨 설립을 위해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오던 각 대학들의 행보도 분주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교는 현재 박종훈 기획인사처장을 위원장으로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위원회'가 조직돼 앞으로 본교 로스쿨 설립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위원회'는 다음 달에 그동안의 논의내용을 정리하는 연구보고서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종훈 기획인사처장은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로스쿨 설립과 관련한 법안의 구체적 윤곽이 확정되고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추진 연구위원회의 논의가 나오는 10월 말쯤부터 교수 총원을 비롯한 적극적인 활동이 시작될 것이다"고 말했다.

교수총원·독립건물 필요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로스쿨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인가기준은 크게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으로 나뉘볼 수 있다. 인적요건은 △교수 1인 대비 학생 15명 또는 12명 △전임교수 20명 이상 △전임교수 중 20% 이상이 전공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것이다. 현재 본교 법과대는 총 11명의 교수가 있는데 교수 1인당 학생비율은 1대 44정도로 로스쿨 인가기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이다. 이와 관련해 손성 법과대학장은 "정식채용에서 수시채용으로 전환하고 우수 교수 채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적요건에 관한 로스쿨 설립기준은 로스쿨이 독립된 건물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규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법학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학전문도서관 △교수법정 △교수연구실 △세미나실 △학회실 등을 갖춘 공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교에

서는 지난 학기에 구입한 중앙대 필동 병원 건물에 로스쿨을 우선적으로 배정함으로써 로스쿨 설립에 관한 물적기준을 충족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인가기준을 만족시킨다고 해서 모든 대학이 로스쿨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인가기준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로스쿨의 설립 허가 방식은 요건을 갖춘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결정을 내리는 인가주의이다. 로스쿨 설립을 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들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교가 로스쿨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로스쿨 설립 조건을 만족시키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대학들과의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돼야 한다.

로스쿨 특성화 관심 가져야

본교는 로스쿨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로스쿨의 특성화에 관심을 기울이

고 있다. 이는 인가기준을 만족시킨 대학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중 교수(국제학)는 "로스쿨의 특성화는 인가 과정뿐 아니라 발전적으로 로스쿨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로스쿨의 규모와 개수는 로스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 대학이 가장 민감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까지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모는 전체 1200명 신입생 선발, 각 로스쿨 당 200명 이하의 학생정원이다. 하지만 학생정원이 200명 이하라는 점이 모호하고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로스쿨 설립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학생 정원도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로스쿨 도입을 위한 경쟁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될 것이다. 적극적인 지원과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 된다면, 본교의 로스쿨 도입은 생각보다 가까운 현실일 수 있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우리학교 공학교육시스템 점검

공학인증제 보완 위해 공학교육연구센터 신설계획

학습강화 위한 교과과정 정비와 지속적인 논의자리 마련해야

이공계 기피현상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정부와 각 대학들은 점차 지원자 수가 줄어만 가는 이공계를 살리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 △이수학점의 확대를 통한 전공 심화 △공학인증증을 정부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올해 안에 공학교육인증 관련자와 교수, 학습 개발자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TF팀을 구성하고 현재 공학교육인증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 평가와 공학교육인증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연계할 방침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 공과대·정보산업대 교수들은 현재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발맞추기 위해 공학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지난 17일에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를 위한 '2004년 공과대·정보산업대 공학교육 개선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이날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현재 국내 공학교육의 동향과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 그 속에서 우리학교 공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 중 현재 우리학교에서 실시 중인 공학교육인증제도에 대한 논의에서는 이 제도와 관련한 최근 국내·외에서의 동향과 이에 따른 우리학교의 대응책 등이 중점적으로 제시됐다.

실제로 우리학교에서는 공과대, 정산대 학생들의 실질적 학문 능력과 공학관련

기초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학인증제도를 지난 2001년에 도입했다. 공학교육인증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들을 이수했다고 인정받은 학생들의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공학교육에 대한 학습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어 도입한 것이다.

생명화학공학과 김병식 교수는 "인정받을 경우, 외국에서 공학관련 실질적 교육능력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인증을 받은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겠다고 발표한다"고 말했다.

공학인증제도 보완 필요

그러나 우리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제외한 공과대와 정산대 8개 학과에서 시행 중인 이 공학인증제도의 운영 과정

에서 몇 가지 보완돼야 할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우리학교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공과대, 정보산업대 전체 학생들이 공학 기본소양과목과 BSM(Basic of Science & Mathematics : 기초과학 및 수학) 교과목을 수강해야만 한다. 이 과목들은 현재 자연과학영역인 제4영역에 편성돼 있으며 졸업까지 BSM과목은 30학점, 기본소양과목은 12학점을 이수해야 공학 인증을 취득 받고 졸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부 공과대 학생들은 이로 인해 졸업 때까지 4영역 이외의 다양한 학문들을 경험하기 어렵고 복수전공 역시 제한돼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경준(전자3)군은 "정해진 영역만을 듣기에도 너무 벅차 다양한 영역의 교양수업을 들어보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 교수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훈련의 기회가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않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설계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년별로 단계적 절차를 통한 학습이 이뤄져야 뭉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교수간의 강의에 대한 충분한 피드백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보산업대 학장 조성구 교수는 "학습에 대한 성과와 평가를 중심으로 교수와 학생간 지속적인 개선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과대·정산대에서는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공학교육 교과과정과 관련한 내용을 연구하기 위한 공학교육연구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관에서는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지속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공학교육과 관련한 교과목의 커리큘럼들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전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공학점을 62학점으로 늘리는 대신 BSM과목은 27학점, 기본소양과목은 17학점으로 제도를 변경할 고민 중에 있다.

한편 연세대의 경우는 학생들의 공학인증관련 과목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이공계 학생들이 인증을 받

아야 졸업이 가능한 것이 아닌 인증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인증을 받아 해당 학점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에 있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 공과대 학장은 "이공계 학생들 중에도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는 만큼 전체 학생들이 인증을 받도록 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학교육연구센터 역할 기대

따라서 우리학교는 현재 타대학들에 비해 선진적으로 공학인증을 획득해 이에 따른 제도들을 연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앞으로는 공과대·정산대 교수들과 학과 간의 공학인증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자리가 확충돼야 한다. 또한 신설되는 공학교육연구센터에서는 현재 고점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BSM, 기본소양 과목들을 변화하는 실정에 맞춰 새롭게 교과목의 커리큘럼들을 재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학교육 분야에서 실무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교육시스템과 교과목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공학교육 관련 논의 활발

2005학년도 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특별전형

모집 인원 : 전 계열(전학과) 학과별 약간명

지원지역

1. 국내·외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자 또는 2005년 2월 졸업예정자
2.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이수학과는 면접시 포트폴리오 지참)

전형일정

1. 원서교부 : 2004. 9. 22(수) ~ 10. 6(수)
 - 가. 장소: (1)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gs)에서 원서를 다운(Down)받아 지원할 수 있음
 - (2) 서울캠퍼스: 대학원 교육부(학술관 3층)
 - (3) 경주캠퍼스: 사회과학 대학원 교육부(진흥관 1층)
 - (단, 평일 17시 이후 및 토요일은 학술관(서울), 진흥관(경주) 수위실에서 교부함)
2. 원서접수 :
 - 가. 인터넷 접수 : 2004. 9. 30(목) ~ 10. 5(화) 17:00시 까지
 - 나. 방문접수 : 2004. 10. 4(월) ~ 10. 6(수) 9:00 ~ 17:00시 까지
 - 다. 우편접수는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접수자는 전형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체국 통상환을 발급받아 원서,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접수(확인전과 필)
3. 전형일자 : 2004. 10. 16(토)
4. 합격자 발표 : 2004. 10. 28(목) 14:00 예정 (대학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지)

장학

1. 외국인 입학생은 등록금의 50% 장학금 지급
2. 각종 교외장학, 조교장학(연구, 교육 및 행정조교), 총장장학, 교시장학, 공인회계사장학 등 다수가 있음
3. 화학, 물리, 수학, 생물학과 입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4. 화학공학과 입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5. 본교 학·석사 출신 입학생 전체에게 입학금 면제(졸업 후 3년 이내 전학자 대상)
6. 국문, 반도체학과 입학생에게 특색 장학금 지급
7. 학생회 집행부에게 전액 장학금 지급
8. 자매대학 교환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기타

- *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하는 "블로그와 상상사(BK21)교육연구단" 외 기타 교육부(한국학술진흥재단), 과학기술부(한국과학재단),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의 국가지원 연구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참여 대학원생에게는 매월 연구비 지급
- * 본 대학원은 석사과정 3학기, 박사과정 4학기 내에 수료 가능함
- * 석사과정 법, 경영, 화, 생물, 가정학과는 서울, 경주캠퍼스 공동 개설된 학과임
- * 석, 박사과정 공리 학부 및 석사과정 출신학과에 관계없이 장학금 증시가능 (현, 간호, 외(입상계열전공) 학과는 동일 학과에 한하며, 석사과정 의학과(기초의학전공)는 생명과학 및 유사 관련학과 전공자에 한해 지원가능. 다만 간호학과는 3년제 대학 간호학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지원가능)
- * 연극영화학과 영화학 전공은 이문임
- *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참조

동국대학교 대학원 교학부

TEL. 02-2260-3094/5, 3115/6 FAX. 02-2260-3685 www.dongguk.edu/gs

산주와 일반인을 위한 동국대 '산림사회교육' 무료강좌 개설안내

"내산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본 교육은 산주에게는 산으로부터 이익창출 관리방법을 제시하고 일반인에게는 숲과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내산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법, 입산물의 가치 찾기, 산의 공익적 가치 바로알기, 산림환경 복원의 중요성, 풍수지리학 및 부동산 관리, 산삼, 디덕제법 및 목탄, 목초액 생산법 배우기 등 현장체험을 통해 산과 숲의 가치를 바로 알고, 산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교육은 일반인에게는 숲 환경에 대한 교양을 쌓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 개설목적
 - 산림 경영 모범사례 분석을 통한 소득원 창출 기회 제공
 - 전문적인 지식과 경영기법을 교육함으로써 산주의 경영마인드를 고취
 - 숲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연친화적인 삶에 대한 교양
- ◆ 주관 및 후원
 - 주관 : 동국대학교 산림자원학과
 - 후원 : 한국녹색문화재단
- ◆ 교육대상
 - 산림 소유자 및 관심 있는 일반인, 학생
- ◆ 교육인원
 - 각 회당 선착순 160명
- ◆ 교육방법
 - 주말을 이용하여 토요일은 강의, 일요일은 현장 견학으로 3회에 걸쳐 실시
- ◆ 교육 일시
 - 제 1 회 : 10. 09(토) ~ 10(일)
 - 제 2 회 : 10. 16(토) ~ 17(일)
 - 제 3 회 : 10. 30(토) ~ 31(일)
 - (토) 9:00 ~ 18:30 (일) 9:00 ~ 17:00
- ◆ 교육장소
 - 서울 중구 동국대 생명자원과학대학 (해와관)
- ◆ 접수문의
 - 동국대 산림자원학과 (02-2260-3316)
- ◆ 수강신청 방법
 - 전화 신청 및 교육당일 수강 신청이 가능하며, 각 과정별 선착순 40명으로 제한됩니다.
- ◆ 참가비
 - 교재, 현장이동차량 무료제공
 - * 중식 (토), (일) 10,000원

◆ 강의과목 및 강사진

과정	강의 과목	강사진	현장실습(일요일)
공통	산림지형지적	산림청 운영권 국장	
	산림지원사업	산림조합 이장수 상무	
임업경영	산림휴양	문화원 동국대 교수	유명산휴양림 경기도 가평
	풍수지리 및 부동산관리	동국대 사회교육원 황영웅 강사	
산림환경	산림환경생태	동국대 오충현 교수	한수조경 경기도 강화
	지구산림생태	서울시립대 이경태 교수	
단계소득지원	소득지원 생산	국립 산림과학원 문봉규 박사	산삼, 디덕제법지 경기 양평
	생명공학 기술	동국대 강호덕 교수	
임산지원	산삼, 디덕제법	조남상 임업후계자협회장	
	숲 생산이용기술	동국대 김대원 교수	강원 철송 강원도 평성
	임산버섯 재배법	국립 산림과학원 박원희 박사	

우체국 전자금융 이벤트

- ◎ 인터넷뱅킹 ▶ www.epostbank.go.kr
 - ▶ 폰뱅킹(ARS서비스 또는 상담원 연결)
 - ▶ 전화 : 1588-1900
- ◎ 이용수수료 저렴 ▶ 우체국간 이체 : 무료, 타행이체 : 건당 400원
 - ▶ 온라인환경조금대출서비스 : 건당 2,000원
 - ▶ 인터넷정기예금 이용시 : 고시이율 + 0.3%
- ◎ 서비스 이용시간 ▶ 야간 및 공휴일에도 이용가능

◆ 새고객 모시기 행운 대잔치 (9.1~9.30)

구분	품목	추첨인원
1등	100만원 상당 백화점상품권	2명
2등	50만원 상당 gift카드	4명
3등	25만원 상당 주유상품권	8명
행운상	1만원권 문화상품권	100명
고객상	사은품	신규고객

서울 동국대학교 우체국

☎ 2273-6507, 2273-1005

국회의원 59명 '간도협약 무효결의안' 제출 논란

지난 9월 3일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 등 여야 59명의 의원이 '간도협약 원천 무효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중 외교관계를 우려해 반대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지지하는 학회가 구성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평행히 맞서고 있는 찬반의견을 지면화 해본다. 편집자

간도협약은 명백히 국제법상으로도 무효

중국의 동북공정의 추진에 따른 고구려·발해 역사왜곡의 본질이 간도영유권 문제에 있음이 드러났다. 장래 남북한의 통일에 대비하여, 재중 동포들의 정체성 확립과 영토 분쟁지로서 간도지역의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역사 왜곡을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은 국회의원 59명이 '간도협약 원천 무효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사태로 발전하는데 촉매 구실을 하였다. 무효결의안 제출이 남북관계와 한·중 외교 및 경제적 교류에 악화를 초래한다고 하는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러한 신중론은 기우에 불과하다. 광복 후 56년 동안 간도문제를 중국에 제기하지 않은 이유가 국민만을 위한 신중론 탓이라기보다는 역대 위정자와 관료들 자신들을 위해서였다. 1992년 한·중 수교과정에서 가장 대표적 경우이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퇴임을 앞두고

자신이 추진했던 '북방정책'을 마무리 짓기 위해 중국과 굴욕적인 외교협상을 벌여, 중국에 간도영유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양국간에 수교가 이루어졌다. 간도영유권 주장은 한국이 반드시 제기하고 되찾아야 할 권리인 동시에 중국과 반드시 청산해야 할 과제였지만, 역대 정권은 사대주의적이며 굴욕적인 외교 자세로 인해 현실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의원 59명의 '간도협약 무효 결의안' 제출은 그 동안 침묵으로 일관한 중국의 간도 불법점유에 대하여 이 지역의 영토분쟁지임을 천명한 것이며, 한·중 수교 후 불공정한 관계로 틀 지워진 양국의 외교관계를 시정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무효 결의안 제출은 간도영유권 주장의 시작이며,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 전략이기도 하다. 간도협약은 청·일간에 맺은 조약이나 국제법상 무효이다. 즉 간도협약은 1905년 을사늑약을사 즉 간도협약은 1905년 을사늑약을사 조약은 근거로 체결되었지만 을사늑약이 일본의 강박에 의한 체결이고, 고종의

비준이 없었으므로 국제법상의 무효조약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간도협약은 무효이며, 간도협약에 의거 획정된 한·중 국경선은 당연히 무효화되어야 한다. 간도협약은 청·일 간에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제3국인 한국에 효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선이 결정되었다. 또한 2차대전 후 일본이 체결한 모든 조약이 무효화되고 일본이 탈취한 지역은 원상회복이 되었는데 유독 이 간도협약에 의거 획정된 한·중 국경선은 원상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외교절차를 통해 중국에 간도협약의 무효를 통보하여 점유에 의한 중국의 취득시효를 중지시킬 권리가 있다. 또한 철저한 계획 아래 중국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중단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일걸(한국간도학회 부회장)

선부른 영토분쟁, 한·중관계 악화 초래

최근 우리 국민을 격분하게 만들었던 '동북공정'은 중국의 '만주전략'이자 '동북아 전략'으로서, 향후 한반도 정세변화가 중국 동북지구 사회안정에 미칠 영향이나 충격 및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 동요와 이탈 움직임 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또한 동북사회에 대한 통일 한반도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역사노리를 개발하고, 통일 후에 불거질지 모르는 영토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처방안의 하나로 '간도협약의 무효화' 결의가 논의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조약의 불법성에 대해 울분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간도협약'의 무효화를 제기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못하다. 첫째, '영토' 문제 제기는 중국국민의 '아픈 곳'을 건드리는 행위로서 자칫 한 중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켜 정치·경제적으로 한반도에 먹구름을 드리울

수 있고, 중국의 역사왜곡 시정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 근대 이후 중국은 한반도 넓이의 7배나 되는 땅(약 151만km)을 빼앗겼다. 따라서 중국 근현대사를 전공하고 있는 학자들은 '영토 상실'에 대해 중국국민이 품고 있는 '한(恨)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 간도문제를 중국의 역사왜곡 시정을 위한 카드로 삼겠다는 논리 역시 재고해야 할 것 같다. 영토문제 제기는 중국의 강경대응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평화통일 실현에 필요한 중국의 협조를 곤란하게 만들어 남북통일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반도 긴장 해소 및 남북교류의 현실화를 바탕으로 한 남북통일을 실현하는 일이 긴요하다. 여기에는 중국의 협조가 절실하다. 셋째, 중국과 국경을 맞대지 않고 있는 우리가 간도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1962년 이미 중국과 국경조약을 맺은 바 있는 북한을 배제시킨 채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동시에 역사왜곡 시정을 위한 남북공조를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 넷째, 국제법적으로 '간도협약'의 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는 점에 집착해서 간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이수화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국제법적 시효와 관계없이 관련 당사국 국방이 문제제기를 한다면 통일 이후에도 간도지역을 현실적인 분쟁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한중관계의 '뇌관'이나 다름없는 영토문제 제기는 통일 이후로 미루는 것이 국익에 유리할 듯하다. 지금은 중국정부에 지방정부 차원의 역사왜곡 행위를 바로잡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민족의 단결과 경제발전, 통일실현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할 때다. 이는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소탐대실'의 상황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윤휘택(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2004 동국해외탐방' 결과 보고회 수상작

최우수작

PBB도입 통한 경찰예산의 효율화 방안

정연성(경행3), 한유섭(경행3), 김종배(경행1)



과거부터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자유시장경제의 '경쟁'이라는 대원리가 국가 발전의 큰 밑거름이었던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에 팀 'In Valor, There is hope'은 조직의 능력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경쟁'이라는 원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획일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행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는 생존경쟁이 없는 진화하는 허상일 뿐이며, 세계화 시대라는 환경에서 살아 남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은 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진화는 몰락한 사회주의와 같이 생존경쟁이 결여된 허상의 진화가 아닌, 생존경쟁을 적극 활용하는 실질적 진화라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경쟁적 행정이라는 구호 아래 성과주의라는 새로운 시점에 우리 자신을 놓았으며, 그 후 우리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국가 공공기관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과주의예산의 성공적 도입 방안과 성과주의예산의 실제 도입의 연구 및 한국 경찰예산제도 발전 방향의 모색을 위해 탐방을 떠나게 되었다.

시민과 호흡하는 예산제도

우리는 미국 썬슈튼 대학의 경찰연구센터(Police Research Center)와 휴스턴 본 경찰청 및 오스틴 경찰청을 선행 연구 기관으로 벤치마킹하고 결정적인 소스를 제공해 준 쉰니베일(Sunnyvale) 공안청을 연구중추로 정했다. 성과주의 예산의 핵심인 쉰니베일시 공안청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통해 1년 업무단위 당 예산비용의 20% 감소효과를 보이고, 2요소조건의 도시에 비해 고용 공무원들의 수가 45~50% 정도 낮으나, 이로 인해 공무원들에게 더욱 높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었으며, 3시민들에게는 더 적은 양의 세금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 성과주의예산의 효과를 특별히 보고 있었다. 제도의 성공요인과 도입 후 변모점을

우수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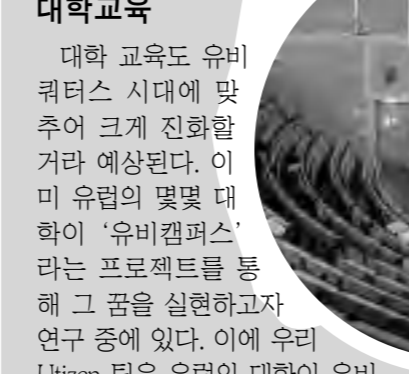
하노버대학 유비쿼터스에 대한 연구

민풍기(컴공4), 손성진(정보시스템공4), 최보윤(컴공4)

인류 사회는 농업 혁명, 산업 혁명을 거쳐 현재 정보 혁명의 단계에 있다. 각각의 패러다임 안에서 인간의 생활은 눈부시게 발전하였으며 미래 학자들은 비롯한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정보 혁명을 뛰어 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혁명'이 도래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란 인간의 생활 속에 공존하는 모든 사물 속에 컴퓨터가 내장되어 언제 어디서나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네트워크가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과거의 인류 혁명이 그랬듯이 인간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통해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유비쿼터스시대의 대학교육

대학 교육도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추어 크게 진화할 거라 예상된다. 이미 유럽의 몇몇 대학이 '유비쿼터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그 꿈을 실현하고자 연구 중에 있다. 이에 우리 Utizen 팀은 유럽의 대학이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어떻게 대학 교육에 접목시키고 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동국대학교의 교육 방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를 제시하고자 에릭슨(Ericsson Corp, Sweden), 하노버대학교(University of Hanover, Germany), 베를린 공과대학(TU of Berlin, Germany)으로 이번 탐방을 계획하였다.



유비쿼터스 프로젝트는 무선 통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지향하는 바가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이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에 현재 일반적으로 쓰이는 유선 LAN 환경에서 무선 통신으로의 전환이 유비쿼터스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이라 하겠다. 우리는 먼저 블루투스 기술을 개발하는 스웨덴의 에릭슨사를 방문하였다. 블루투스 기술은 현재 무선 LAN과 더불어 무선 통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술이다. 블루투스 기술이 한국에는 널리 보급이 되지 않아 도입 단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면 학교 내에서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무선 통신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학생들 학습향상과 흥미유발

다음으로 방문한 하노버 대학교는 유비쿼터스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학교이다. 노트북을 이용한 쌍방향 교육을 설계하여 강의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노트북을 이용하여 교수는 학생의 수업 참여도와 이해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학생들은 교수들이 제공하는 학습 자료를 손쉽게 얻고 수업 중에는 교수와 1:1 대화도 할 수 있었다. 이런 수업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교수와 학생이 언제나 노트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항상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하노버 대학교에서 유비쿼터스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수업 진행 상황을 조사한 결과 노트북을 통한 쌍방향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이 보통 수업을 듣는 학생들보다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베를린 공과대학교 무선 LAN을 이용한 수업을 연구 개발하고 있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첨단 기술로 무장한 대형 강의실인데 대형 빈 프로젝트, 전자펜, 전자 칠판, 그리고 강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으로 녹화가 되어 후에 학생들이 복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었다.

우수작

IT와 BT의 융합, 이제는 생물정보학 시대

오원찬(생물3), 이광민(생물3), 이지현(생물3)

동국해외탐방에 참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공과 관련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주제를 선정했다. 주제를 정한 후 국내 생물정보학의 발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문헌과 인터넷 등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생물학도에게도 생소한 이 학문은 예상했던 것처럼 국내에서는 연구가 거의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그래서 실제로 Bioinformatics 관련 기관인 SNP Genetics, 고려대 생명공학원, 그리고 아산병원을 직접 방문하면서 사전 조사를 하였고 국내에서는 생물정보학 관련 인력양성이 유독 어렵고 정부와 학교, 학교와 산업을 연계하는 system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형 Database Network를 개설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 탐방 주제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활발한 정보공유와 활용

우선 캐나다 The Hospital for Sick Children과 이 병원 내의 연구기관인 The centre for applied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Chromosome 7에 의해 발생하는 유전병 및 SNPs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 Data를 Canadian Genetic Disease Network라는 곳에 저장, Centre for Computational Biology(CCB)에서 관리함으로써 캐나다의 모든 과학자들이 이 저장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다음으로 생물정보학 관련 인력양성 curriculum을 알아보는 The University of Toronto를 방문했다. 이 대학의 Biology학과는 수십 개의 Dept로 구성됐고 우리가 방문한 Dept.에만 72개의 연구실이, 즉 72명의 교수가 있었다. 인력 양성을 위해서 충분한 교수를 임용하는 학교의 규모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우리나라의 국립 암센터와 비교할 수 있는 Ontario Cancer Care를 방문했다. 이곳에 연구하는 학생, 박사 모두 Biology와 Computer Science를 전공한 생물정보학자로서 방문한 연구소는 물론 이곳 Lab의 자체 Database까지 구축하면서 실험을 통해 얻어낸 정보를 저장, 이용하고 있다. 토론토의 마지막 방문지는 토론토 대학의 Molecular and Medical Genetics Dept.였다. 여기서 우리가 만난 Dr. Peter J. roy는 Canadian Foundation for Innovation(CFI), Ontario Innovation Trust(OIT), 그리고 National Cancer Institute of Canada(NCIC)로부



터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고가의 장비들까지 지원을 받음으로써 연구에만 몰두하고 자신의 연구 결과를 정부와 공유함으로써 이익이외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Montreal의 Mc Gill University에 방문했을 때는 윤이 좋게 이날 열렸던 생물정보학 관련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Measurement of Network Information from N-point Correlations라는 주제로 Computer program을 이용해서 DNA에 있는 유전자 상관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함으로써 Data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제는 생물학 또한 자연과학에만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번 탐방의 마지막 방문지는 Bio-tech관련 산업체인 Genome Quebec으로 여기서 만난 분은 10층이나 되는 규모의 건물을 보여주면서 Bioinformatics의 응용분야인 SNPs와 Microchip의 연구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곳 또한 근처의 McGill University 및 캐나다 내에 구축된 여러 Database를 기본으로 정보를 쉽게 얻고 그것을 활용, 산업화하고 있다.

BT산업 육성 과제

탐방내용이 산·학·연 협동 system이었기 때문에 탐방을 준비하면서도 방문 대상을 대학, 연구소, 산업체에 맞추고 그것이 탐방 주제와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 기대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고 탐방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캐나다와 같은 BT강대국은 서로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가도 필요하면 힘을 합치는 system을 갖추어서 미래를 대비하는 전문 인력 양성에까지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인식해서 엄청난 상업적 가치를 지닌 BT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국내의 몇몇 대학의 Bioinformatics 관련 교육 과정을 채택하여 BT의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춰 나가고 있는 지금 동국대학교도 이 사실을 인지해서 더 늦기 전에 '세계로 가는 동국'을 위해 새로운 교과 과정을 신설해서 21C를 준비하길 바란다.

보리소

3분 삼매

불교 경전에는 해인삼매 법화삼매 신심삼매 엄몰삼매 등 여러 형태의 삼매가 등장하고 있다. 삼매란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집중시켜 흔들림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오로지 마음의 집중을 통해서 깊은 삼매에 들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삼매의 경지에 이르러야 부처님의 지혜와 가피력을 얻어 기도를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삼매에 드는 과정으로는 경전을 보거나 읽고 쓰는 간경 사경이 있고, 불보살의 이름을 부르면서 물입해 들어가는 엄몰, 또는 진언, 일심으로 부처님에게 108배, 1080배, 3000배 절을 하면서 삼매에 이르는 방법이 있다.

참선을 한다. 경을 본다 할 때 단 1시간, 아니 10분, 5분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 3분 동안이라도 물입 집중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이미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큰 스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들은 적이 있다. 좌선한 채 밤을 꼬박 새워 화두를 듣거나 경을 펼쳐 놓고 읽는다고 하지만 대개는 막무가내로 엄습하는 졸음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천만가지 번뇌 망상으로 말미암아 3분 삼매는커녕 그보다 더 번쩍하는 짧은 순간에도 온전한 삼매에 빠지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고 했다.

보통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기도 중에 느닷없이 튀어나와 마음을 어지럽히는가 하면 새 학기에 만나게 될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걱정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그것들을 제어하고 차단하느라 시간을 소모하고 마음은 여러 갈래로 분산되어 삼매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아침 저녁으로 산들바람이 불고 있다. 이 가을에는 어떤 유희와 호호, 망념에도 동요하지 않고 학업이든 깨달음이든 관계없이 단 3분만이라도 삼매에 빠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3분 삼매, 고요히 한 번 읊미해 볼 말이 아닌가 한다.

변영희
'마흔 넷의 반란'의 작가

문화 콘텐츠라는 말 속에는 문화가 소수의 취미나 격조를 위해 필요한 소품이 아니라 이제 당당하게 재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감이 배어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화상품을 팔목상대하는 분위기는 문화를 이루는 하위단위들에 대한 인식과 개념을 바꾸어 놓고 있다. 가령 문학의 경우, 위상과 개념도 근래 급속하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된다.

소비품으로 변질돼가는 문학

이제 문학은 작가가 인간의 삶과 본질을 깨닫기 위해 심신의 고단함을 감내하며 밤새워 내려가는 담론만을 가리키지 않는 것이다. 문학은 철저히 수요자의 기호를 의식해야만 하는 소비품으로 변질되어버렸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흡입할 수 있는 소재일 것, 현실적 시간과 공간을 나열하여 한시라도 거기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 것. 주제가 아니라 영상을 위해 봉사할 것, 특히 신세대들은 갖가지 요구사항을 던지며 문학담론의 고전적 개념을 해체하려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기성세대는 할말도 많고 화도 많이 난다.

나도 기성세대이므로 그들이 삶의 깊이 없이 감각적으로 문화를 향유하며 고민 없이 무책임하게 행동한다면 타박을 치고 싶다. 하지만 잠시 말미를 두고 생각해본다. 그리고 신세대들의 주권 없는 행동에서 나온 결과로



김승호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논단

전통적 상상과 환상의 세계

우리 문화콘텐츠로 만들자

보기에는 그 흐름이 너무 도도한 것 같아 슬며시 생각을 바꾸기로 한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노력 부족

시대는 이제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 속에서 자력갱생의 활로를 모색해 보아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정말 더 고민해야 하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불변의 요소로 남

을 수밖에 없는 문학적 알맹이, 곧 콘텐츠의 생산이라고 여긴다. 서점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삼국지,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코너를 별도로 설치하고 술한 독자들이 순수 문학 코너는 외면한 채 이들 판타지, 역사소설에 열광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말은 안하지만 그들은 문단의 상상력 빈곤을 비웃고 있으며 재미와 흥미를 충족시켜주는 외국산 판타지에 이미 깊이 중독된 것이다. 하기사 대표 작가들이라는 사람들까지 나

서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주석을 달고 삼국지를 번안, 평석하는 데 더 큰 역량을 발휘하는 판이니 누가 나서서 그들을 책할 것인가. 기백 년 전에 나온 삼국지가 21세기의 필독서가 되고 있고 야속한 고대 그리스 이야기와 중세 유럽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애독서가 되고 있는데도 기성세대조차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거대담론의 재미에 빠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독특한 콘텐츠 개발돼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 태생적으로 상상력이 빈곤했던가. 문학사에는 많은 신화, 전설, 전기, 서사무가 등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으며 동명왕편, 삼국유사, 용비어천가처럼 과거시기 설화를 환골탈태 시킨 작품들이 분명 존재한다.

반지의 제왕이 톨킨의 개인의 상상력이 빛어낸 위대한 작품이긴 하나 그 역시 북유럽의 신화와 기독교의 신화에 나름대로 재해석과 윤색을 보태 거대한 콘텐츠로 바꾸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우리도 주몽, 해모수, 김유신 같은 영웅을 웅장한 판타지의 주인공으로 부활시켜야 하고 가능하다면 세계적 캐릭터로 만들어야 한다.

전통적 상상과 환상의 세계는 나 몰라라 한 채 수입된 판타지, 영상물에 언제까지나 혼을 빼앗길 것인가. 상상력이 빈곤한 민족이란 말은 그 무엇보다 자존심 상하는 육이다.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발로 뛰는 기자의 노력 요구돼

지난호 동대신문에서는 우리학교 교육기획단에서 실시한 '학습량 및 학습형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기획기사로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1면에 설문 결과에 대한 간단한 보도와 4면 해설면에서의 교육기획단 팀장의 이에 따른 분석이 이뤄졌다. 하지만 해설면의 주를 이루고 있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전문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곳의 담당자가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기자가 직접 내용을 숙지하고 분석했으면 더욱 좋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동대신문을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은 지면이 너무 유동적이고 매주 나오는 칼럼들의 위치 역시 너무 많은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정된 칼럼을 지속적으로 읽는 독자들의 경우 신문을 읽을 때마다 달라지는 칼럼 위치에 당황할 수 있다는 점을 편집하는 기자들이 유의했으면 한다.

하지만 지난 1393호의 사설의 경우 현재 학내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내 여론광장, 나의 주장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기자 나름의 시각으로 정황화 꼬집어 준 점에서 흥미로웠다. 또한 오승길 기사에서는 우리학교의 이러한 훌륭한 학생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는 데 충분했다고 평가된다.

지난 동대신문을 읽고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기자들의 현상에서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발로 뛰는 기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성신문의 기자들과 화과 공부를 병행해야 하는 대학신문 기자들의 기사가 이러한 면에서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는 최대한 기자들의 발로 뛰, 자신들만의 목소리가 담긴 기사가 가득하기를 희망해 본다.

염태웅(사과대 신방3)

학업증진 위해 도서관 장서 확충 필요

지난호 동대신문 1면 기사는 '현 재학생의 학업준비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및 재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물론 상당히 성공할 만한 내용이며, 나 또한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과연 학생 개인들에게만 이 문제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과연 학교는 학생들의 학업준비를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하고 있을까?

매 학기 초 학생들은 강의마다 제시되는 교재들로 고민을 한다. 강의에 필요한 책을 대략 합산해 보면, 수업에 필요한 주 교재가 약 10권(평균 15학점을 놓고 보았을 때), 부교재 및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책까지 합하면 최소 15권이다. 이 책 모두를 구입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기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찾게 된다. 그러나 현대식 시설을 자랑하는

도서관은 걸로 드러나는 위용만큼 학생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필요한 책들이 없어 학생들은 번번이 헛걸음을 하고, 결국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최소 수준으로 교재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교가 학생들의 학업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학생들의 태만을 지적하기 전 이 같은 불편함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 다음 학기 진행될 수업 강의계획서를 검토해 필요한 책들을 준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학교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는 약 92만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 혹은 유럽 대학들은커녕 서울의 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와 비교해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을 생각하면 씁쓸하다.

정찬영(사과대 정외2)

내가 중국어를 배우는 또 하나의 이유

올해 2월 형의 중국 유학문제로 중국을 가게 됐다. 중국 천진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부터 알고 지낸 중국 친구와 술자리를 갖게 됐다. 어느 정도 술자리가 무르익었을 때 중국 친구는 넌지시 나에게 남북한 핵문제에 관한 정상 회담에 대한 내용을 꺼냈다. 그 와중에서 다른 문제는 남과 북이 합의를 보지 못했는데 다만 고구려 사에 대한 중국의 왜곡(동북공정) 문제에 대해서만 남북이 협력하는 데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로 인해 한국민은 중국에 대한 감정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시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중국 친구가 먼저 그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있던 동료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었고 나는 중간에서 상황을

수습해야만 하는 입장이 되었다.

내가 그때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은 내 입장이 정립되어 있지 않거나 내가 그와 관련된 것에 무관심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단지 내 중국 언어 실력으로 그 중국 친구에게 중국이 현재 진행 중인 이러한 고구려사 왜곡 문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때 내가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았다. 단지 좋은 직장을 잡고 개인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만으로 중국어를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그들이 왜곡하고 있는 우리 역사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을 정립해서 말하고 싶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확실하게 전하고 싶다는 그 이유이다.

김동우(문과대 중문4)

소나기

출산률 하락에도 늘어만 가는 입양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의 정책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출산률 장려라고만 외치지 구체적 방안은 마련하지 않는 듯.
△아이들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것은 정말 안될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입양률 1위라는 말을 듣고 너무 부끄러웠다.
△입양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입양 시 이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본다.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해의 입양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국내에서 입양하려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출산률 장려도 좋지만, 늘어가는 입양을 줄이기 위한 방안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기 낳고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나빠요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문구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문의 · 제보 : dgupress@dongguk.edu

달하나 천강에



이영재
경명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요즘 세상을 다루고 있는 신문에서 청년 실업의 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태백, 사오정 이런 말을 아직 학교의 울타리 안에 있는 여러분은 분명 아직 잘 모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직 한 심정으로 대학 교수인 저 역시도 그리 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두운 소식을 접할 때 안타깝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학과는

그나마 다른 학과들보다 취업률이 높지만 많은 제자들이 취업과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며 저를 찾아옵니다. 9월 들어 벌써 세 명이나 찾아와서 상담을 했는데,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다가올 현실에 대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며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만난 제자들 중에는 정말 공부도 잘하고 평소 성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부나 생활면에서 성실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야 그냥 지켜만 봐도 자기 할 일 찾아서 잘 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은 그냥보이 안타깝습니다. 4학년이 되어 서야 후회하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지나간 시간이 다시 찾아오지도 않는데 말이지요. 모두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된 대학생활에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시련과 패배를 맛보아야 하는 현실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저 역시 대학에 들어갈 때, 여러 번 고백을 마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달고 맛있게 마시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건 내

가 시련을 겪기 전에 미리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학과 함께 항상 노력했습니다. 남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유희를 즐기는 반면 나는 당시의 시대적 혼란 속에서도 나를 위한 준비에 바빴습니다. 어쩌면 그런 혼란 속에서도 시련을 겪지 않으려는 저 나름대로의 몸부림이었던지도 모릅니다. 그런 몸부림의 결과가 지금 저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아주 터럭만큼도 못되는 위치라 할지라도 나는 내 자리에 만족하며 내가 꿈꾸었던 그런 미래의 내 모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여러분은 정말 더 힘든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생으로서 선편로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모습을 머릿속 도화지에 그려가며 하나씩 현실로 이루려고 노력하세요. 세상의 어려움을 맞고 자기 자신의 무능을 탓하고, 자기 주변의 현실을 탓하는 어리석음으로는 절대 여러분의 그림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 그림이라는 것 그것은 꿈이라는 밑그림으로 그리고 현실이라

는 채색으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수한 노력과 열성을 쏟아야 합니다. 세상에 때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해야 합니다. 세상이 필요한 것을 자기가 싫어한다고 해서 회피한다면 그건 도망자의 길이지 모르겠네요. 좀더 안정된 미래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인내와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공부를 하며 실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항상 열심히 제대로 한 사람만이 밝은 미래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수도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꾸준히 연구하지만, 각자의 이상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력은 자만이 기회가 찾아오며 세계로 진출 할 수가 있습니다. 캠퍼스가 공부하며 연구하는 학생들로 가득차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공부하는 자만이 언젠가 자기의 눈앞에 자기 미래의 길이 환하게 보일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사설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을 보내자

아테네 장애인올림픽이 지난 17일 개막해 13일 동안 진행된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이번 올림픽은 세계 140개국 6000여명이 참가했고 우리나라 대표팀 역시 양궁과 육상 등 13개 종목에 총 127명이 출전한다. 이처럼 대회규모와 참가인원을 볼 때 지난 아테네올림픽과 큰 차이가 없지만 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현저히 저조하다. 대다수 사람들은 올림픽 후 장애인올림픽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대회일정과 우리 선수단의 참가종목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이다. 언론 역시 이런 무관심을 부추기듯 올림픽 경기중계와 결과보도를 등한시하고 있다. 방송은 공영방송사만이 하루 한시간 미만의 하이라이트 경기를 방송할 뿐이고 신문 역시 경기결과를 짤막한 단신으로 처리하고 있다. 한 달 전 운동 올림픽방송과 올림픽 관련 머리기사가 언론을 장식했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시청률을 의식한 언론의 이같은 태도는 또다시 사람들의 무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선수들의 사기가 저하돼 흥미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되풀이시키고 있다. 또한 시장논리 때문인지 선수에게 지급되는 포상금도 비장애인보다 현저하게 적은 실정이다. 비장애인 금메달입상자에게는 국가로부터 매달 100만원의 연금과 1억원 이상의 별도 포상금이 지급되는 반면 장애인에게는 매달 80만원의 국가연금만 고작이다. 게다가 비장애인 선수는 올림픽 이후 유명인이 돼서 향후 진로선택의 폭이 넓지만 장애인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한다는 이유로 직장으로부터 쫓겨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장애인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평화의 장이고 선수들의 치열한 승부의 장이며 지구촌사람들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장이다. 신체극복을 소재로 한 감동의 드라마가 아닐 뿐더러 비장애인올림픽의 의미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한 달 전 아테네에 보냈던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다시 한번 우리 선수에게 보내자.

메아리

통금과 국보법

▲통금이 시행된 때가 있었다. 지난 1945년 9월 미군정이 치안유지를 이유로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거리통행을 일체 금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통금시간을 어기고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잡히면 구금되거나 벌금을 내야했다. 이처럼 통금은 당시 사람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지배세력은 '통치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통금은 시행된지 36년이 지난 1982년에서야 마침내 해제를 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내세운 선심성 조치였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통금해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했다는 것이다. 치안유지는 말할 나위 없고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통금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였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오늘날 생각해보면 선뜻 이해하기 힘들지만 36년 동안 지속돼 온 통금이 해제된다고 상상하니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모양이다. ▲요즘 국가보안법 폐지여부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사법부의 국보법 존치, 노 대통령의 폐지발언 이후 보수와 진

보간의 국보법 존폐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논란은 우리사회 민주주의가 예전보다 한층 성숙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아직까지 상당수 국민들이 북핵을 적대국으로 바라본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더욱이 4년 전 남북 정상회담을 주도한 공동선언을 채택해 한반도에 화해분위기가 조성된 후에도 국보법은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지는 학생들을 지금 순간에도 이적행위라는 테두리에 가두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마르크스 저작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됐던 과거보다는 나아진 듯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보수정당은 유독 국보법에 가려진 인권보장과 사상의 자유는 도외시할 뿐이다. ▲통금이 사라진지 20년 이상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민주주의가 더욱 발달할 20년 후 현재의 국보법 폐지논란을 상기한다면 씩씩한 웃음이 나지 않을까. 최성민 편집장 qwertewq@dongguk.edu



동국 시문학의 발자취

스무 살

박재천

그때, 빙하 속에서 만난 이용악의 전라도 가시내 눈보라치는 드림통 술집에서 노래야 나오너라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젓가락을 두들겨대다가 눈물이 북받치던 전라도 가시내의 목 쉬 노래 속에 눈나무가 되어 입을 다문 강원도 심산의 나무들 그 나무들마저 불 태우는 스무 살 심화를 내 가슴에 복사한다 그때, 그 노래 속에서 만난 스무 살의 하늘 손에는 전피장갑을 끼고 엉덩이에는 수통을 찬 스무 살의 나무들 거기 소처럼 길게 누워 허품을 하는 최전선의 산을 첨부하여 나는 오늘 너에게 보낸다.

군대 체험은 마치 불에 덴 자국처럼 누구에게나 시간이 갈수록 선연해진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이 땅의 남자로서 거듭 나는 이니시에이션의 과정이라고도 하지만 막상 당사자로서는 갖가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군 체험이다. 지난 60년대 전방 산고지에서 군 생활을 겪은 이 시인은 지금도 스무 살적의 젊은 자신에게 이태 일로 그 생활체험을 전승하고 있다. 그것도 화집 속의 생생한 수채화처럼 보내준다. 이른바 재학생 문인이 심어명색에 이르던 그 동약의 교정을 이 시인은 그렇게 잊지 못하고 있다. 벌써 가을이다. 우리 모두 내연으로 가는 사색의 긴 여행을 떠나도 좋은 계절이다.

홍신선
예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동국만평

이호선 icezz@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6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권주간
부주간 권본철
편집국장 류병성
편집장 최성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68 팩스 (054)770-2057

제7회 송편배우기 & 사랑나누기

햇과일과 햇곡식이 풍성하고 흥겨운 날로 모든 가족이 한데 모여 집안의 화목을 다지고, 1년의 풍요와 안위를 보살펴주신 조상의 덕을 기리고, 이웃들과 풍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추석이 다가옵니다. 한가위 추석의 가장 대표음식인 송편. 이를 만들어본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이 송편 빚기를 익히며 잊혀져 가는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아울러 학생들이 정성껏 만든 송편을 봉유한 이웃에게 전달하여 '사회적 효'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본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들도 참여하여 '세계의 추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동국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보람있고 뜻깊은 추석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2004년 9월 22일(수) 10:00 ~ 16:00
장소: 동국대학교 계산관 1층(사법대 옆)
주관: 동국대학교 여학생실(문의: 2260-3056, 3058)
후원: 동국대학교 참사람봉사단

Table with 3 columns: 시간, 순서, 내용. Details the schedule for the event, including registration, making and eating songpyeon, and a presentation.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 학생 실

계산고시학사 입실 신청

2004-2학기 계산고시학사 행정고시·외무고시·언론사 시험반 입실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신청기간: 2004. 9. 15(수) ~ 9. 22(수), 13:00~17:00
2. 신청장소: 계산고시학사 1층 참고열람실(사선 1매 지참)
3. 선발기준: 1) 국가고시 1차 합격자
2) 고시장학생 선발시험 성적 우수자
3) 기타 국가고시에 진지한 열의가 있는 수험준비생
4. 선발자 공고: 1) 일 시: 2004. 9. 24(금)
2) 장 소: 계산고시학사 계산관 및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공지
* 문의사항 : a.m 10:00 ~ p.m 2:00 사이에 2260-357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고시·외무고시·언론사 시험반

수강과목 취소

- 1. 신청기간: 2004. 9. 23(목) ~ 24(금), 2일간
2. 신청장소: 소속대학 교학과, 야간강좌 교화처
3. 수강과목 취소 처리 절차
가. 소속대학 교학과 및 학교 홈페이지 양식함에서 취소신청서 양식 출력
나. 소속대학 교학과에 취소신청서 접수
4. 유의사항
가. 수강과목을 취소한 자는 다른 과목 신청이 불가합니다.
나. 수강신청 취소후 수강신청확정이 12월경 미인인 경우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4학년(1, 2학기) 학생은 3학점 초과학점 취소가능(학년기준).
다. 장학생 선발 기준은 신청확정이 아닌 취득학점하므로 취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라. 졸업시 3, 4학년 전문교육과목에서 제1전공 및 제2, 3전공 최저이수학점의 1/2 이상 취득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취소신청 하기 바랍니다.
마. 취소과목은 해당학기만 성적표지표에 표기(W).

교 무 처

교원임용고사 대비 교육학특강

사범대학생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들의 중등교원 임용고사를 대비하고 합격률을 제고하고자 교육학특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기간: 2004년 10월 4일(월) ~ 10월 21일(목)
강의시간: 매일 18:00 ~ 19:40 (100분 강의)
장소: 학림관 J201
수강료: 무료(교재제공)
안내사항: 수강희망 학생은 10.4(월)에 사범대 교학과에 등록 후 교재 수령

시간표

Table with 5 columns: 일자, 과목명, 교수, 장소, 비고. Lists the schedule for the education special lecture.

사 범 대 학

대학가에 펼쳐진 벽의 예술



지하철 동대입구 역에서 내려 혜화문으로 가는 가파른 언덕길의 바깥 쪽 벽면에는 누구나 한번쯤 봤을 벽화가 그려져 있다. 이 벽화는 지난 97년 중구청의 요청으로 우리대학 오원배(미술학) 교수가 그린 것이다. 벽이 많이 남아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 그려진 이것은 중구청에서 예산 지원을 했지만 위치상 우리학교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대학특징 반영한 벽화

우선 벽화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입체 모형들은 '우리나라의 중심에 중구가 있고, 그 중심엔 동국대학교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벽화에 그려진 우리대학 상징 연꽃과 100주년 기념 로고 등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벽화는 우리학교 미술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작품 구성에서 완성까지 참여한 것이기에 더욱 친근하다.

그려진지 7년이 지난 벽화는 현재 많이 남아 있다. 벽화를 그릴 당시에는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잘 벗겨지지 않는 페인트를 사용하고 코팅작업까지 했다. 그러나 벽에 균열이 많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매연, 산성비 등으로 지금은 많이 바래졌다. 게다가 7년 전에 비해 벽화 주변 환경이 많이 달라져 다소 동떨어진 느낌까지 준다.

이와 관련해 오원배 교수는 "벽화 작업 후 수명기간을 길게 5년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 새로 작업을 해야 한다"며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각종 오염물질에 잘 훼손되지 않는 모자이크 형식 등의 조형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대학교 주변 거리에서는 학생들이 그려놓은 벽화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큰 담뽀만 아니라 오래된 건물 외벽 등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담은 크고 작은 벽화들이 많다. 이는 미술분야가 발달한 홍익대 주변만의 이색적인 문화다.

더구나 이 일대는 이같은 벽화문화가 활성화되어 일반 상점들도 건물을 인테리어 하는 방법으로 벽화를 사용한다. 이에 학생들이 그린 벽화 외에도 상점에서 자체적으로 그린 벽화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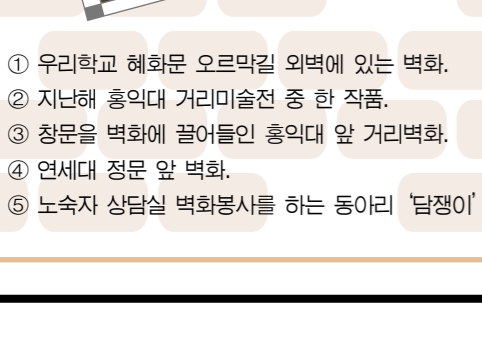
연세대학교 정문 앞 기차길 다리 밑에도 큰 벽화가 길 양옆으로 그려져 있다. 벽화는 연세대 앞 거리 풍경 등을 담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다소 삭막하고 지저분한 구조물을 보완하면서 미관 기능을 높인다. 그러나 이 벽화가 위의 다른 대학 벽화와 다른 점은 학교와 상관없이 벽화 전문 기능공들이 그린 것이라는 점이다.

도시미관 고려해 관리돼야

이렇듯 대학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벽화의 대부분은 그 대학을 표현하고, 주변 문화를 보여준다. 벽화는 공공성을 지니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그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은 단지 지저분한 벽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벽화가 그려진 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학교 앞 벽화도 내실있게 발전하는 우리학교를 상징하고 우리학교만의 문화를 표현하는 새로운 벽화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해 본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① 우리학교 혜화문 오르막길 외벽에 있는 벽화.
② 지난해 홍익대 거리미술전 중 한 작품.
③ 청문을 벽화에 끌어들이는 홍익대 앞 거리벽화.
④ 연세대 정문 앞 벽화.
⑤ 노숙자 상담실 벽화봉사를 하는 동아리 '담쟁이'.

대학연합벽화봉사동아리 '담쟁이' 인터뷰

"친근한 소재로 세상을 바꾸요"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 학교, 복지시설, 교도소 등을 다니며 밝은 환경을 그려주는 이들이 있다. 바로 대학연합벽화봉사동아리 '담쟁이'이다.

'담쟁이'는 지난 99년 창립된 전국대학연합 자원봉사단 '실천사랑'을 모체로 한다. '실천사랑'은 농촌봉사, 해외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담쟁이'는 이 중 문화봉사동아리 벽화봉사부파로 서울 소재 16개 대학 팀 및 개인을 포함해 약 150여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해 2주에 한번씩 팀장 위주로 구성된 회의를 열며, 그동안 영등포교도소(2002), 교남 소망의 집(2003), SOS 어린이마을(2003), 서울시립아동병원(2003), 안양교도소(2004) 등 50여 곳의 실내·외 벽화를 그렸다.

벽화의 소재는 주로 동화책 일러스트에서 따온다. 가장 친근하고 편한 소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윤희(31, 성신여대 대학원 출) 단장은

"순수 창작 작품은 사람들이 어려워해 거부감을 느낀다"며 "벽화를 요청하는 쪽에서 방향을 정해주기 도 한다"고 말했다.

'담쟁이' 신입생 모집은 실제로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등 제한이 없으나 동아리 자체가 대학생 활동 위주로 진행된다. 때문에 매학기 초 각 대학에 포스터와 전단지 등을 통한 홍보로 이뤄지고 있다. 김 단장은 현재 활동하는 학생들 중 약 30명만이 미대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또한 "벽화봉사는 재능으로 봉사할 수 있고 그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매력"이 있다"며 "내가 가진 재능으로 사람을 교화하고, 그들이 머무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도전하고 싶다면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맛있는 벽을 아름답게 만드는 담쟁이 넝쿨처럼 앞으로도 이들의 그림이 어두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큰 몫을 하리라 기대해 본다.

문화부
culture@dongguk.edu

대학생 '벽화종합선물세트'를 받자

홍익대학교 주변 거리를 걷다 보면 건물 벽과 담 등에 크고 작은 벽화를 볼 수 있다. 이 벽화들은 표현하는 내용도 무척 다양할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걷고싶은 거리'와 '시장통거리'를 비롯해 작은 골목까지 지난 6년 동안 학생들이 그려놓은 벽화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학교 주변에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는 이유는 매년 홍대 미술대학 학생들이 중심이 된 '거리미술전'이 열리기 때문이다. 거리미술전은 지난 93년 홍대 미술대학 한 학생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미술관과 강의실 등 폐쇄된 공간을 벗어나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미술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매년 가을 홍대 주변 거리에서 열리는 거리미술전은 여러 미술대학 학생과 작가 등이 참여하며 벽화, 미술전시, 공연, 영상, 참여미술 등의 분야로 이뤄진다.

제12회를 맞이한 올해는 'MIX-섞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큰 주제로 꾸러졌다. 벽화분야 세부주제는 '종합선물세트'와 '되돌아보는 벽화'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미(홍익대 도예유리4) 홍보팀장은 "처음 벽화전시회가 시작된 7회 때부터 제작된 작품들을 보수하거나 엮서로 만드는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지난 벽화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리미술전의 벽화는 한 주제를 갖고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표현하는 데서 예비 작가들의 창의성과 개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흥미롭다.

오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다. 대학생들의 미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느끼고 싶다면 홍대 거리를 한 번 찾아가 보자.

문화부
culture@dongguk.edu

먹여주는 문화계 직업을 찾아서

'오감'으로 즐기는 음식을 만든다

푸드 아티스트

우리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다. 웰빙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단순한 음식보다 갖가지 장식을 해 먹음직스럽게 만든 음식을 선호한다.

'푸드 아티스트'는 '푸드 스타일리스트'와 혼용돼 쓰이며 신문, 잡지,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상대로 세련된 음식 예술품을 만들거나 테이블 세팅, 장식 분위기 연출 등에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는 '웰빙' 붐이 일어난 최근 3년 사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에 푸드 아티스트 국가 자격증은 없다. 그러나 이 분야의 인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학원이나 대학의 학과 등이 많이 생기는 추세다. 전문 자격증이 없는 터라 이같은 기관에서 과정을 수료하고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푸드 아티스트는 단 몇 개월의 일정한 수료과정만 거친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다. 푸드 아티스트 오정미 씨는 "이 분야에 단지 관심만을 갖고 시작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며 "이것을 꼭 하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장기간동안 각 분야별로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푸드 아티스트는 실제로 기본적인 요리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이를 예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감각과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푸드 아티스트의 활동 범위는 무척 넓다. 촬영활동 외에도 레스토랑 컨설턴트, 파티 플래너, 강의, 작가 등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그 활동 영역이 다양하다. 이렇듯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때문에 자기 시간 활용이 가능하며 능력에 따라 보수 차이도 크다. 오정미 씨는 "직성이 맞으면 일이라는 생각보다 생활의 일부로서 즐길 수 있는 직업이다"며 "굳이 미술 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정신과 장기적 안목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 음식이 단지 미(味)적 감각만을 추구하는 시대는 지나고 있다. 예전에는 당장 해결하기에 급급했던 의식주가 이제는 삶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직업의 중심에 서려하는 푸드 아티스트는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이 분야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이 있기에 더욱 아름다운 직업이다.

mh705@dongguk.edu



오정미씨 작품(왼쪽·오른쪽)과 사진촬영을 위해 음식을 손질하는 수강생(가운데).

문화단신

SSID·Fearless Dawn 정기공연

우리학교 라틴댄스 동아리 SSID와 락 동아리 Fearless Dawn이 이번 주 정기공연을 갖는다.

제19회 Fearless Dawn 정기공연은 내일(21일) 오후 6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열리며 03, 04학년 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원들의 공연으로 진행된다. 또한 제3회 SSID 정기공연은 오는 29일 오후 7시 본관 중강당에서 열리며 △스윙 △탈춤 △댄스 △걸스합창 △자이브 등 총 8곡 공연과 미술동아리 MASIC의 초청공연이 이뤄질 예정이다.